



중남미 보험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

이해랑 연구원

■ EY는 2015년 2월 중남미 보험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중남미 보험시장의 도전과제와 기회를 제도 측면에서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는 최근 중남미의 최대 시장인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전반적인 중남미의 성장률 상승 및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기대가 보험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보고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빈곤과 실업률 감소, 인구 이동 등의 요인이 보험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함.

■ 중남미 보험시장으로의 진출 및 운영을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측면을 살펴봐야 하며, 특히 고려해야 할 측면은 중남미 보험시장의 현황과 보험 관련 조세제도 및 규제 등의 주요 변화임.

-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보험회사들은 현재 중남미 각국의 보험 침투도 및 주요 판매 채널을 파악하고, 효율적 판매 채널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며, 보험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 정치, 경제 및 규제 환경의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함.
- 보험회사가 중남미 시장 진출 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조세제도 및 변화로는 주요 조세개혁, 법인세율 등의 세율, 조세회피방지 규정, 지역 간 주요 조세 조약, 세무 감사 활동 등이 있음.

■ 또한 보고서는 중남미 각 국가별로 보험회사가 주목해야 할 세율과 조세정책 및 정책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브라질은 높은 법인세율과 보험채널에 주목해야 함.
 - 브라질 내 보험회사들은 최소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40%에 달하는 높은 법인세율의 영향임.
 - 브라질 보험시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상품 직접 판매가 불가능하여 상품별 주요 판매 채널이 다

르며, 방카슈랑스의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수의 생명보험회사가 세무전략 측면에서 은행과의 합작 투자를 이용하고 있음.

- 멕시코와 칠레는 보험회사 건전성을 위한 규제 도입과 향후 조세 개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함.
 - 현재 멕시코와 칠레는 RBC와 솔벤시2와 유사한 방향으로 보험산업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규제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본 확충과 자본관리 능력이 중요해질 것임.
 - 최근 멕시코의 조세 감사는 이전소득에 대한 감사활동이 강화되었고, OECD의 BEPS¹⁾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칠레는 이자소득에 대한 공제와 외국투자 규제에 대한 법안 개정을 계획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국가 채무 불이행과 2008년 시행된 민간 연금펀드 국유화의 영향으로 보험시장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보험회사들은 보험 관련 규제 증가,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 높은 인플레이션, 기술적 채무 불이행 문제 등을 주시해야 함.
- 콜롬비아는 주변국보다 외국계 회사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주요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 해외보험회사의 활발한 시장진출이 예상됨.
- 페루 정부는 성장에 집중하고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외국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에 주어지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 페루는 2019년까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 개혁을 계획하고 있음.
- 각국의 법인세율, 배당금 원천징수세율, 재보험 원천징수 세율은 <표 1>과 같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법인세율이 가장 높음.

<표 1> 중남미 각 국가별 세율

구분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법인세율	40%	30%	21%	35%	39%	28%
배당금원천징수세율	0%	10%	35%	10%	0%/20%/33%	6.8%
재보험원천징수세율	1.20~2%	2~40%	2%	3.5%	0%	2.1%

주: 콜롬비아의 경우 회사등급에 따라 배당금 원천징수 세율이 차등화 되어 있음.

자료: EY(2015, 2), Reaching new heights, p. 4 재구성.

- 국내 보험회사들도 해외진출에 유리한 시장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며, 이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각국 시장의 현황 및 조세 제도 등 다양한 측면을 주시해야 함.

(EY 등)

1)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소득이전)의 약자로 OECD에서 협약된 행동강령이며, 이는 다국적 기업이 나라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소득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 등의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규제임.